



코트를.. 나는.. 가장.. 큰.. 새들

L4-7

스위치 전문 개발 업체인 파이오링크에는 농구동호회 '알바트로스'가 있다. 그들의 첫 인상은 '개구지고 운동 좋아하게 생긴 청년들.' 그러나 농구코트에 서면 진정한 알바트로스(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멀리 나는 새, 일명 신천옹)가 되는 열혈 농구마니아들이다.

2003년 농구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 매주 농구를 하게 된 것이 알바트로스의 탄생이다. 지금은 각 부서에서 가입한 회원 수가 늘고 늘어 무려 23명이나 된다.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활발하고 든든한 동호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구를 좋아하는 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농구로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푼다.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농구죠."

알바트로스 회장을 맡고 있는 파이오니어 랩팀 장동호 과장의 말이다. 회원들은 매주 목요일 일과가 끝난 후 9시부터 10시까지 농구의 매력에 흠뻑 빠진다. 각자의 일이 바쁘고 몸도 피곤하지만 17명 이상은 꼭 참석한다고, 철저히 '자율'에 맡겨지지만 이렇게 높은 참석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농구에 대한 애정 덕분이다.

열심히 일하고 난 후 즐기는 농구의 묘미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법. 입사한 지 2달 정도 된다는 김창배 씨는 매주 목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회사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매달 한 번씩 가지는 호프데이는 알바트로스의 친목을 더 탄탄히 다져주는 비결 중 하나라고 귀띔한다.

알바트로스의 또 다른 멤버 김명환 씨는 동호회 가입 초기에 너무 열심히 경기에 임한 나머지 두 번이나 부상을 당했다.

"직장인이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이라니 말 다했죠. 한 번은 다리에 김스를 하고 다닐 정도였는데 회사에서 농구동호회를 없애니 마니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김스를 풀고 알바트로스로 다시 돌아왔죠.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기도 하지만 알바트로스 사람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회사 농구동호회에서 도전을 하든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들의 바람은 직장인 농구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 그리고 더 큰 바람은 벤처회사 농구동호회만의 대회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파이오링크가 업계 최고로 올라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도 빠지지 않는다.

시종일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서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알바트로스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날 인터뷰에 참석한 자칭 알바트로스 베스트 멤버들.
김로준, 김경진, 김명환, 민철홍, 장동호 과장, 김창배 사원.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

스스로 신념과 열정의 사나이로 칭하는 온오프코리아 영업팀 박동명 팀장. 늘 활기차게 생활하는 그의 모습만큼이나 미니홈피에도 생기가 돈다. 그의 미니홈피(<http://cyworld.nate.com/sun2278>)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내 자신에 대한 완전한 자각과 깨달음을 위해' 라고 써놓은 문패다. 제법 진지한 이 자세, 여느 26세 청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 능적으로 직감하게 된다. 게다가 "불같은 신념으로 세상을 비추겠다"는 굳은 다짐까지 대문을 장식하고 있으니 이 총각, 예사롭지 않은 인물임이 확실하다.

박동명 팀장의 측근들이 남긴 일흔평도 역시 남다르다. '신념교주 박교주 핫팅!', '확고한 신념의 형님 존경합니다' 등 그는 이미 허다한 무리를 이끌어 교세(?)를 형성한 듯 보였다. 미니홈피 게시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글은 신념, 성공철학, 마인드컨트롤에 관한 것들. 박팀장이 직접 쓴 것도 있고 좋은 글들을 스크랩해 올려놓은 것도 상당수다. 미니홈피 외에도 '신념의 힘'이라는 카페(<http://cafe.daum.net/tlssuadmlgla>)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무려 4760명에 달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가 이토록 진지한 사나이가 된 계기는 군복무 시절, 고된 군 생활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뎌내고자 성공학 관련 서적들을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품, 습관을 분석해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아예 소대원들과 함께 학습 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평소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말인 '신념의 힘'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성공학 덕분에 삶이 변화하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박팀장은 제대 후 미니홈피와 카페를 개설, 본격적으로 '신념의 힘' 전파에 팔을 걷어붙였다. 3년째 운영 중인 카페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컨트롤, 성공인 연구, 자기암시 등 신념에 관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고 미니홈피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회원들끼리 매주 정모를 갖고 주제별 토론을 나눈 후 거기에서 정해진 목표를 한 주 동안 실천하기도 한다.

웹프로모션, 온라인광고, 모바일마케팅 등을 대행하는 온오프코리아에서 영업팀장을 맡고

있는 만큼 그에게 성공철학은 큰 힘이 되고 있다. 광고 컨

설팅과 유치를 함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

문, 팀원 교육에도 성공철학을 활용하기 때문에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막강 3팀'을 이끌고 있다. 팀원들을

비롯해 회사 직원의 절반가량이 카페에 소속되어 있

을 정도로 그의 입지는 회사 내에서도 확고하다.

성공적인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박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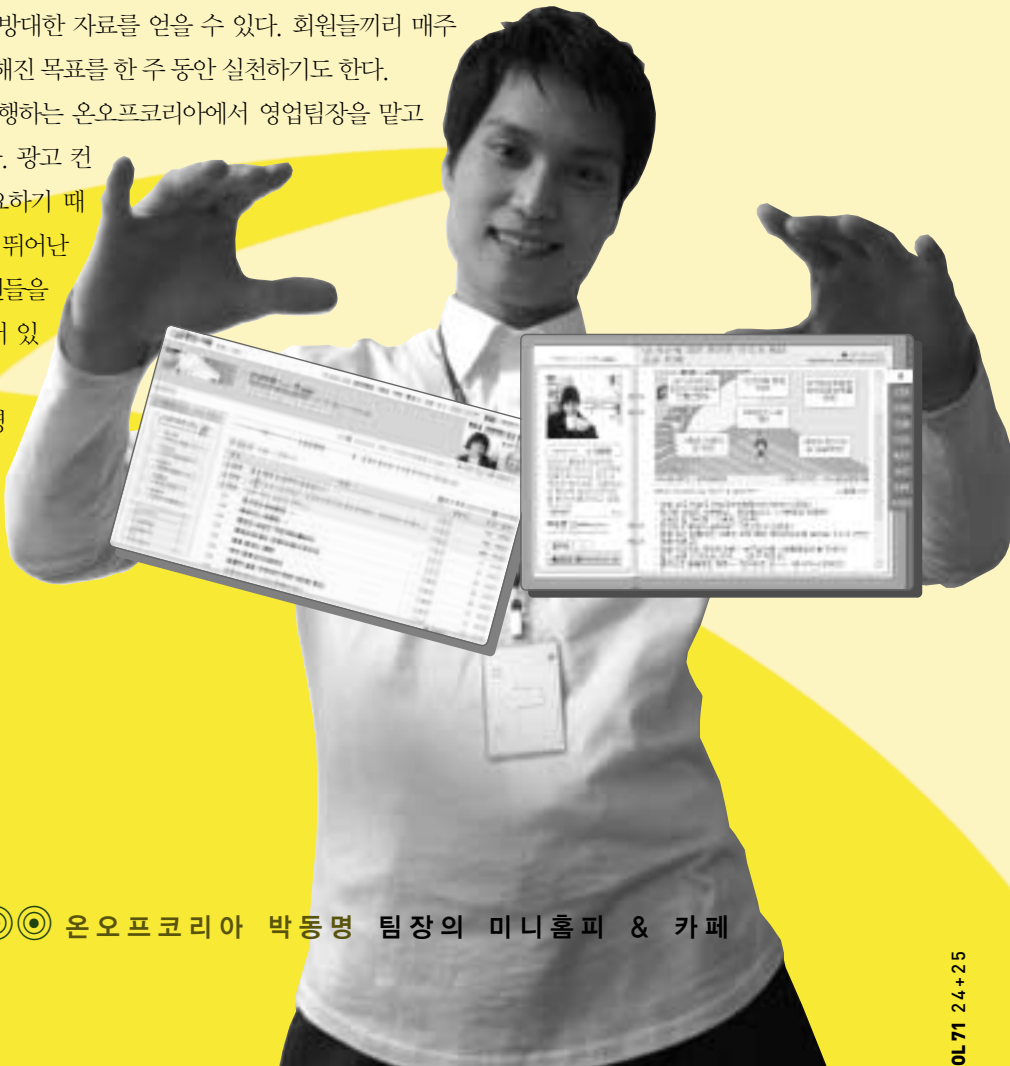
팀장의 미니홈피와 카페. 이곳에 앞으로도 많은

네티즌들의 발자취가 남길 희망해 본다. 그리고

훗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학 동기부

여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꿈도 꼭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Venture in,
벤처인



Funny Venture ©© 온오프코리아 박동명 팀장의 미니홈피 & 카페

신념의.. 힘!.. 박교주를.. 따르라